

71年 民間經濟白書

抄錄 2

科學技術과 産業은 夫婦와같은 關係에 있다. 집안살림이 夫婦의 協同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듯이 科學技術은 産業隆盛의 絕對的인 要素이며 따라서 産業人은 科學技術開發에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科學技術人은 産業經濟의 動向을 銳意 注視해야 하겠기에 여기 '71年民間經濟白書(全國經濟人聯合會·經濟技術調査 센터 發行)의 抄錄을 收錄하는 바이다.

~編輯部

1. 重農開發의基礎與件

農工間의 不均衡과 農政의 効率性 檢討

70年 負의 成長으로부터 71년에는 1.2%의 成長을 보인 農業部門은 12.8%라는 高度成長을 나타낸 非農業部門과 비교 검토할때 여전히 劣勢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 重農開發의 基盤이 미흡함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또 한편 工業部門과의 有機的 發展體制가 이룩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農工間의 均衡과 自立經濟의 기축을 마련한다는 觀點에서 農政의 再檢討가 要請되어지는 것이다.

71년에 시행된 主要事業施策을 보면 생산과 所得增大, 生産基盤의 확충, 流通體制整備, 農漁村 환경개선 등 실로 우

리나라 農政의 현안문제가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單성적인 外米依存度의 深化, 穀價의 不安定, 農藥 및 肥料 需給의 차질, 田轉換事業의 不振, 農村勞動力 不足과 勞賃의 上昇등 政策에 차질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71년 糧政의 주요한 轉換은 消費者米價의 현실화와 더불어 高米價政策 보리쌀價의 豫示制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增産에 주요한 動機를 부여 할것이나 또한 勤勞賃金의 上昇 및 기타 물가 파급으로 經濟安定과의 조화라는데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이와 같이 71년 農政의 성과를 검토해 볼 때 아직 重農의 與件이 성숙되지 못하였던 關係로 획기적인 成果는 거두지 못하였지만 農業開發의 필요성에 대한 絶叫과 더불어 農工均衡을 위한 政策追求가 일부 추구되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겠다.

價格政策의 增産誘導

연중 農業生産動向을 보면 米穀은 70년보다 40만석의 증가를 보인 3,998천ㄱ를 생산하였으며, 보리는 70년보다 파종면적이 8만 ha 가 증가된 107만 ha에서, 197천ㄱ를 생산하였으며, 콩 222천ㄱ를 포함해 기타 1301천ㄱ의 生産實績을 보였다. 그러나 食糧自給率은 72.2%로 低調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糧穀의 再點檢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즉 主穀의 自給을 위해 70년 秋穀收買價를 35.9% 인상시키는데 이어 71년에는 25%를 인상시켜 高米價政策의 追求로 生産意慾을 고취시키는 한편 消費者米價를 현실화시키고 二重麥價制를 실시토록 하여 보리의 쌀 代替效果와 더불어 쌀 消費節約을 모색해 했으며, 보리쌀과 콩에 대해서 收買價格豫示制를 導入 72年産 보리를 30% 引上 査定했고, 콩은 70~100% 引上 수매할 것을 예시해 穀價面에서 획기적 增産誘導를 마련했다. 또한 혼식장려운동, 政府米의 일부 混合穀放出 등을 통해 國民食生活의 개선을 이룩하는 한편 쌀의 消費節約을 도모해 하였다.

한편 農漁民所得增大 特別事業으로 政府는 經濟作物栽培에 주력케 하여 양송이 11천ㄱ를 생산함으로써 600만弗의 輸出實績을 거두었으며 蠶業의 경우 桑田面績을 올리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그밖에 農家所得增大를 위해 前述한 마와 같이 農産物價格支援政策을 꾸준히

	單位	1970	1971
國民總生産	10億圓	2,545.92	3,112.68
農漁業總生産	//	367.37	376.45
非農漁業總生産	//	1,054.96	1,190.46
農家販賣價格指數	1965=100	191.4	232.9
農家購買價格指數	//	193.1	224.1
패리더율	%	99.1	103.9
糧穀總生産	千 M/T	7,475	7,274
미	//	3,939	3,998
보	//	1,973	2,197

科學과 技術

추진한 결과 71년의 페리터율은 103을 실현함으로써 奇現象까지 보였지만 아직도 農家の 소득은 都市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流通面에서는 高速道路 주변에 6개소의 農產物集荷場을 설치하고 流通段階를 단순화시켜 農家利益을 도모하는 등 流通改善을 이룩했지만 糧穀去來에 있어 米穀商의 政府米 流出 및 再搗精으로 政府米의 一般米化, 買占, 賣惜에 따른 價格 조작으로 연중 6,773,988섬의 政府米 放出에도 불구하고 米價波動을惹起하였다 그밖에 農業倉庫의 老朽性등은 앞으로 流通面에서 크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農業基盤擴充政策的 合理化課題

農業生産基盤의 확충과 그 성과를 검토하면 14천ha의 農業用水 開發을 이룩하여 水利安全率이 81%로 증가되었으며, 176천ha의 耕地整理를 이룩해 總耕地整理對象面積 588천ha의 30%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田轉換事業은 71년계획인 19,849ha의 43.3%에 해당하는 8,588ha의 실적에 그쳤다.

한편 肥料, 農業施策은 71년 農政 중 가장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던바 肥料에 있어서는 年間需要量이 620천톤인데 비해 在庫過剩이 396천톤으로 計定上 적자액만도 160억원을 나타냈다. 또한 農業은 914백만원에 달하는 1천%의 移越在庫量過剩을 보였고, 不良供給이 99%, 農作物 피해가 284ha, 農業 피해로 인한 사망이 33명, 그밖에 藥種過다가 133종에 달하는 등 정책에 허점을 보였다 하겠다.

畜産에 있어서는 韓牛飼育頭數가 70년 1,210천頭에서 71년엔 1,230천頭로 20천頭가 증가했으며 우유는 70년 22.8천頭에서 71년에는 4.1천頭가 증가해 26.9천頭로 늘어났으나 事後管理가 다소 소홀해졌으며 飼料流通이 원활치 못했던 허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끝으로 農水産物 輸出動向을 보면 양송이, 生絲類, 合板 등의 輸出好調로 71년에는 332,000천弗의 輸出實績을 보여 計對比 107%의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輸入動向을 보면 10월말 현재 254,571천弗의 糧穀을 도입함으로써 70년 總額에

비해 4%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飼料 또한 29,250천弗로 70년 總額에 비해 21.8%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外貨의 유출을 크게 했다 하겠다.

<重農政策 改善의 課題와 開發戰略>

工業化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開發戰略에 있어 農業部門의 落後性은 불가피하였던 것이라 하겠으나 우리나라 國民經濟는 이제 農業部門의 積極적인 지원 없이는 開發體制에 성과를 거두는데 있어 한계점에 가까이 도달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위에서 제기했던 71년 農政의 諸問題와 더불어 이를 극복키 위한 重農政策下의 農業開發戰略은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外米導入額은 71년 한해 동안만도 150,163천弗로 매해 막대한 外貨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外米導入은 一面 穀價安定에 주요한 기능을 발휘했지만 그동안 정책적인 低米價政策과 더불어 米穀消費를 조장하는 副作用을 초래했던 것이며 한편 증산의욕에도 적지 않은 저해를 끼쳤다고도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糧穀導入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리나 그밖에 저렴한 雜穀으로 代替되어 外貨節約과 米穀增産에 부응토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高米價政策, 보리쌀 收買價의 豫示制 및 二重價格制는 米穀消費節約과 食糧增産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食糧自給率을 제고시켜 外貨의 流出을 事前에 방지할 종합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진 政策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實效를 거두는데는 生産基盤의 造成, 통일벼씨 IR 667과 같은 優良品種의 개발 보급, 營農技術開發 및 産學協同體制의 整備 등 生産性的 提高를 위한 제반 시책이 보다 積極化 되어야 하겠으며, 국민 스스로가 食생활 轉換에 적극 호응토록 정책적인 유도과 더불어 社會運動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米穀과 代替關係에 있는 여타 糧穀의 需要配던에 대한 과학적인 調査가 있어야 할 것이며 熱量單位에 의한 綜合食糧需給計劃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農家所得增大는 公營化의 뒷받침을 할 시장적 條件의 造成과 아울러 勞

動生産性的 提高 및 기계화에 의한 技術習得 등을 통해 工業發展에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工業과의 有機적인 發展體制를 이룬 工業分散化 및 産業立地再編成을 보다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이에 호응토록 할 것이며, 畜産業의 育成, 經濟作物의 확충재배로 農家所得增進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에서 검토할 때 현재의 農村勞動力의 都市移動에 따른 社會問題 해결에도 關鍵이 된다 할 수 있으며 또한 農家 스스로의 資本蓄積을 가능케 하여 自進力 提高의 條件을 마련케 하는 길일 것이다.

네째, 71년중 크게 문제점을 나타냈던 肥料在庫過剩을 해결키 위한 肥料의 海外市場開拓이 積極化되어야 할 것이며 施肥의 科學的 管理와 農藥의 검사 및 단속업무의 강화, 農藥使用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農민의 自助協同을 증진케 하기 위해 農協制度의 개선이 이룩되어 실질적으로 農民의 參與門戶를 擴大하고 效率的 活用을 期할 수 있는 體制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輸出鑛業의 試鍊

成長의 落後와 採鑛條件 惡化

2,3차産業急成長의 그늘에서 계속 退潮에 처해 있는 鑛業은 시설의 老朽, 低品位와 鑛盤의 深部化에 따라 生産성은 低下와 生産原價 상승을 不免하고 있으며 기술과 자본의 高度化가 요구되는 가운데 世界的 不황으로 인한 海外需要의 減退와 出血輸出로 輸出力은 크게 위축되는 등 生産底力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또한 69년부터 추진되어 온 大陸棚 採鑛事業은 美·中共의 접근 등 國際情勢 격변의 영향으로 不振을 면치 못해 7개 鑛區 중 “골프”의 第1, 第4鑛區와 “셀”의 第3, 第6鑛區, “맥사코”의 第1, 第5鑛區는 精密探查를 “필립스”의 第7鑛區는 概略鑛區를 마쳤을 뿐 試推探查는 未了한 상태에 있다.

經濟開發 2次5個年計劃보다 2.9%포인트 낮으며 他部門과 비교해 보면 2次5個年期間중 製造業, 輕工業은 2.7배, 重化

學工業을 2.8倍 성장하였는데 비하여 鑛業은 同期間中 1.2倍 성장으로 저조한成長率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他部門에 비하여 鑛業部門에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71년도 鑛業의 附加價值生産額은 19,490백만원으로 産業構造上의 비중은 66년의 1.71%부터 71년에는 1.37%로 저하되었다. 71년의 鑛産業投資動向을 보면 探鑛事業에는 4억 2,522만원이 투입되었는데 試鑛事業에 2억7,327만원을 투입, 33,619m의 試鑛을 행하여 1,334만1천t(123억8,200만원)의 鑛量을 확보하였으며, 抗道掘進事業에 1억5,195만원을 투입, 23,192m의 抗道掘進을 행하여 350억2,680t(127만7,861만원)의 鑛量을 확보하였다.

鑛業開發을 위하여 투입된 鑛業資金의 融資實績은 16億4,413만2천원이며 이중의 60%가 石炭鑛業에 할당되었다. 그의 石炭公社에 15억원, 出資 融資金 9억3천만원 등 총 28억원이 石炭鑛業育成支援金으로 방출되었다.

國內唯一의 綜合製鍊所인 尙州製鍊所는 民營化되면서 移越된 債務의 과중, 投資不振, 需要豫測의 부정확으로 인한 電氣銅의 在庫過多(5億원) 黃酸價의 50%暴落 등으로 커다란 缺損을 봄으로써 당초 기대됐던 鑛産物의 國內需要포선 증대는 어려워졌으며, 오히려 賣鑛代金決済의 遲延으로 零細鑛業者에게 資金壓迫을 더욱 가중시켰다.

한편 6월 4일 火藥類價의 18.7% 인상으로 鑛業部門은 生産原價의 0.5%~1.0%를 추가 부담케 됨으로써 經營收支는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

主에너지源이었던 石炭은 政府가 과거 한때 主油從炭의 燃料政策으로 그 斜陽化가 우려되었으나, 최근 이를 逆轉한의에 年中 石油類價가 44.5% 인상됨으로써 수요가 增加趨勢에 있으나 探部探炭化에 따른 原價上昇과 賃金上昇(4월에 石公勞賃 20%인상)으로 6월 20일의 炭價 15%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t당 798원의 赤字를 봄으로써 石公의 경우 年末 赤字累績額은 30억5천만원에 달하였으며 民營炭의 경우도 이와 大差없는 赤字經營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70年中 鑛業의 自己資本構成費는 35.

3%로 그 前年보다 14.3%포인트 저하됐으며 鑛種別로 보면 石炭 54.39%, 金屬 13.34%, 非金屬 42.74%로 특히 金屬部門은 製造業의 22.45%에도 미달하는 불균형한 資本構成의 단면을 보였고, 總資本回轉率에 있어서는 石炭 1.37回, 非金屬 1.42回인데 비하여 金屬鑛業은 0.38回로 製造業의 0.76回의 切半에 不過한 저조를 나타냄으로써 石炭 非金屬鑛業에 비하여 현저한 財務構造의 불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鑛業 전체로서의 總資本利益率은 70년에 1.61%로 그前年度보다 5.62%포인트가 낮으나 製造業 1.68%에 비하면 大差없다. 그러나 鑛種別로 나누어 보면 金屬鑛業은 -2.78로 負를 나타내고, 반면 非金屬鑛業은 9.97%의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한편 70年中의 鑛業의 賣出

額純利益率은 1.72%로 그 前年보다 9.01%포인트 대폭 낮아졌으며 製造業一般의 2.19%에 비하여 4.7%포인트 낮은數値를 보여 주었다. 鑛業部門에대한 需要動態는 輸出에 있어 71년에 47,207천弗에 불과하여 前年對比 90.7%가 감소하였으며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1966년 13.6%, 1970년 3.8%에 비하여 계속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鑛物輸出의 不振原因은 重石의 國際時勢暴落과 美國의 G.S.A를 통한 剩餘保有重石의 逆放出, 中共의 덩핑輸出로 인한 輸出萎縮과 수연의 主市場인 日本市場에의 美國進出, 기타 鉛, 亞鉛, 모리브덴鑛, 銀精鑛 등 輸出鑛物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諸鑛産物이 主要市場인 日本의 國內業界의 불황으로 수요가 감퇴된 데 기인하였다.

鑛業 現況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액	석탄생산 실적	수출실적	探鑛事業	
	백만원	억원	4%	千원	施工量 (m)	經費 (千원)
1967	8,319 <7.5>	16.87 <7.7>	12,436 <7.1>	37,612 <10.0>	33,348 <22.4>	205,153 <75.6>
1968	9,901 <19.0>	16.63 <-1.4>	10,242 <-19.6>	46,005 <9.0>	43,137 <29.4>	320,669 <56.3>
1969	10,110 <2.1>	16.88 <1.5>	10,273 <0.3>	51,956 <26.7>	39,680 <-8.1>	332,056 <-3.6>
1970	12,748 <26.1>	19.24 <14.0>	12,350 <20.2>	52,059 <0.2>	33,708 <-15.1>	253,527 <-23.7>
1971	(10,508)	19.49 <0.01>	12,780 <0.03>	47,070 <-9.19>	56,811 <68.53>	316,363 <56.33>

加工施設擴充 및 探鑛積極化緊要

國內産業의 工業化推進에 따라 原料産業으로서의 鑛業의 正常成長이 國民經濟의 觀點에서 主要視되므로 이의 積極育成策이 要望되는 바 이에는 다음과 같은 諸問題點에 대한 對應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既存開發鑛山의 鑛探縮少, 採盡 등으로 인한 深部探掘에 따른 生産費의 증가, 資本懷妊期間의 長期, 危險性의 多大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政府의 積極적인 投融資支援 및 보조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生産單位를 극대화시켜 生産單價의 절감을 期하도록 經營體質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重要鑛産源의 精密한 探鑛 및 開發促進에 관한 政策立案, 特別措置法 등

의 제정을 통한 探鑛活動의 積極화가 요구된다. 精密探査에 의한 鑛量의 確保로서 探鑛事業의 危險負擔率을 낮춤으로써 투자의 安定性을 제고하여 經利益의 再投資와 遊休國民資本의 開發投資에의 尤치를 기해야 할 것이다.

세째, 製鍊施設을 확충함으로써 精鑛型態로 輸出하고 製鍊金屬을 輸入하는 原鑛開發과 製造金屬의 需給體系間의 相互聯關性의 결界를 시정하여 國內資源 활용의 效率性을 제고하고 外貨節約·獲得의 증대, 國內産業聯關效果, 雇傭增大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네째, 需要豫測에 適確을 기하여 적절한 探鑛計劃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原鑛의 長期需給計劃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